

B-11. 교정 치료 환자에서의 상피하 결합조직 이식술

조동환, 김원경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아산병원 치과치주과학교실

연구 배경

교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하악 절치 부위의 치은 퇴축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Vanarsdall 등은 교정 치료 시 치아가 순측으로 이동할 때 순측의 alveolar bony plate가 얇아지고 이에 동반하여 치은의 퇴축 경향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에 치태 축적의 증가나 14-19세에서의 치주 부착 상실의 증가도 치은 퇴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정 치료 시에는 불필요한 치은 퇴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부착 치은의 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치은 퇴축에 대한 부착 치은 폭경 및 두께의 영향에 대한 의견은 아직 논란이 많다. Bimstein 등은 비록 부착 치은이 좁고 얇더라도 구강위생 관리가 잘 되고 치조골 내로의 치아 이동이 이루어진다면 치은 퇴축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치아가 순측으로 이동하여 치은 퇴축을 예측할 수 있다면 교정 치료 전에 미리 충분한 폭의 부착치은을 획득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증례에서는 교정 치료 중에 있는 환자와 교정 치료가 끝난 환자에서 얇고 좁은 부착치은과 치은 퇴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피하 결합 조직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연구방법 및 재료

증례 1

환자: 전○○ (20/F)

주소: 칫솔질 시 하악 전치부(#41,42,43) 잇몸 부위가 칫솔질 자극에 쓰러짐.

기왕력: 본원 교정과에서 교정 치료 중, 하악 전치부 잇몸에 대한 불편감과 치은 퇴축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의 해결을 위하여 본과에 의뢰됨.

현증: #41-43 순측의 얇고 좁은 각화 치은

치료: 구개측 결합조직을 이용한 하악 전치부의 상피하 결합조직 이식술

증례 2

환자: 한○○ (23/F)

주소: 하악 전치부의 치은 퇴축으로 칫솔질 시 이가 시리고 잇몸이 쓰러짐.

기왕력: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개인 병원에서 교정 치료 시행. 수개월전 상기 증상 발현되고 지속되어 개인병원에서 치은 이식술 시행 위해 본원으로 의뢰함.

현증: #32-42 순측의 slight gingival recession(Miller분류: Deg.I), 얇은 각화치은

치료: 구개측 결합조직을 이용한 하악 전치부의 상피하 결합조직 이식술

연구결과

증례 1에서는 부착 치은의 폭경과 두께가 증가하여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치은 이식술 3개월 후 이부성형술을 포함한 악교정 수술을 시행하고 교정 치료를 마무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1년 동안 증가된 부착 치은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증례 2에서는 부착 치은의 폭경과 두께는 증가하였으나 일부 치은 퇴축 부위의 완전한 피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의 불편감이 잔존하는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결론

교정 치료 환자에서 얇아진 부착 치은과 치은 퇴축으로 인하여 환자가 기계적인 자극에 불편감이 생기고 심미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착 치은의 폭경과 두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치은 이식술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